

메시지 4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도록
그분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얻는 것이 필요함

성경: 마 1:5, 수 6:22-26, 7:1-6, 10-15, 20-21, 9:14

- I.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갔을 때, (창녀이자 가나안 사람인) 라합은 그들을 접촉했고 기꺼이 그들을 영접하고 숨겨 주고 구해 주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수 2:1하-7, 15-16, 22, 약 2:25).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는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수 2:11하)라고 선포하였다.
 - A. 여호와와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창녀 라합을 예비해 주셨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이 멸망당하는 데에 함께하지 않았다’(히 11:31). 그녀는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신뢰했다(수 2:12-13).
 - B. 라합이 자신의 집의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줄을 매달아 둔 것은 라합과 그녀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표시였다(수 2:18, 21). 창문에 진홍색 실로 된 줄을 묶어 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의 예표이다(벧전 1:18-19). 그녀는 이러한 표시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집안 식구가 구출될 것을 믿었다.
 - C. 라합은 유죄판결 받은 가나안 사람이자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은 곳인 여리고(수 6:26)의 창녀였지만(2:1),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킨 후(수 6:22-25, 히 11:30-31),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인도자의 아들이자(대상 2:10-11) 아마도 두 정탐꾼 중 하나였을 살몬과 결혼하였다(마 1:5). 그런 후 라합은 경건한 사람인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 이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성취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시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마 1:5).
 - D. 이것은 우리의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합당한 사람과 (물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연결된다면,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누리는 데 참여할 것임을 보여 준다 — 출 24:13, 33:11, 민 27:18, 신 34:9, 수 1:1, 왕하 2:2-15, 빌 2:19-23, 고전 4:17.

여호수아기

메시지 4 (계속)

II. 여리고를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은 아이에 패배했다. 여리고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여호수아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합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다. 그러나 아이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수 7:12 하) 여호수아가 싸움을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다(2-3절).

A. 정탐꾼들이 아이에 관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 자신만을 고려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으며, 주님의 지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없이 스스로 행동하였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다 — 수 7:1-5, 12하.

1. 이스라엘이 아이에 패배한 숨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는 궤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공과를 배웠다(수 7:6). 결국 주님께서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셨다(수 7:10-15).
2.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공과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항상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사람들로 만드신다.
3. 하나님-사람들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며, 우리의 온 존재로 그분과 함께 처신함으로써 그분과 하나 되기를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길이다.
4.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 고후 2:10, 4:6-7, 갈 5:25, 창 5:22-24, 히 11:5-6.

B. 우리가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출 33:14) 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

1.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이라는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계속)

- 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 마 1:23, 딤후 4:22, 갈 6:18, 시 27:4, 8, 51:11, 고후 2:10, 겔 48:35.
2.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의 미소가 통제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제삼자를 통해 얻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직접적인 주님의 임재에 의해서 지켜지고, 다스림 받고, 통제받고, 안내받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분의 보배로운 임재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 출 3:8, 25:30, 신 26:9, 겔 20:6.
 3. “젊었을 때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육십팔여 년간의 체험을 통해 나는 주님의 임재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곧 모든 것이다.” — 여호수아 라이프 스타디, 8장, 61-62쪽.
- C.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에 승리를 거두었을 때, 첫 번째로 죄를 범한 사람은 아간이었다. 아간의 심각한 죄의 내재적인 영적 의미와 그 죄에 대한 신성한 관점은, 그가 자신을 개선하려고, 즉 외모에 있어서 자신을 더 좋게 보려고 바빌론(시날은 나중에 바빌론이라 불린 지역임)에서 만든 아름다운 옷을 탐내었다는 것이다 — 수 7:21.
1. 성령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한 원칙으로 죄를 범했다. 이것은 바빌론의 원칙 곧 위선이다 — 행 5:1-11, 계 17:4, 6, 마 23:13-36.
 - a. 그들은 주님을 그다지 많이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이들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그들은 단지 가장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하는 것으로부터 구출받아야 한다.
 - b.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의 실지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게 된다 — 마 6:1-6, 15:7-8.
 2.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신부의 원칙이 아니라 창녀의 원칙으로 행하는 것이다. 거짓된 헌신과 영성은 죄이며, 참된 경배는 영광진실함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 계 17:4-5, 19:7-9, 눅 12:1, 고전 2:9-10, 고후 2:10, 5:14-15, 요 4:23-24.

여호수아기

메시지 4 (계속)

3.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삼상 16:7)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시 119:1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엡 3:16-17), 그분은 우리 마음의 좋은 보배가 되실 것이며,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놀랍고도 좋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된다(눅 6:44-45).

III.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곧 아간의 죄를 처리한 후에(수 7:11-12, 20-21) 아이에 승리를 거두었지만(8:1-3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9:1-27).

- A.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다(수 9:3, 7, 11:18-19). 히위 족속은, 마귀적이고 귀신들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해 멸절되어야만 하는 가나안 땅의 민족들 중 하나였다(신 7:2, 9:4-5, 18:9-14). 기브온 주민들은 간교하게 행동하여 이스라엘을 속였다(수 9:3-14).
 - B.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패배시켰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 주겠다는 언약을 맺기 원했다. 그들은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서 길을 떠났는데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했다. 그들은 길가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떠나면 땅에서 왔습니다. ...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수 9:6, 11)라고 말하였다.
 - C. 여호수아기 9장 14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 주는 성경 말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 여호와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 주겠다는 언약을 맺었다(수 9:15).
1.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유는 그들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아내와 같았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에게 구혼하시고 결국 그들과 결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창 2:21-24, 아 1:2-4, 사 54:5, 62:5, 렘 2:2, 3:1, 14, 31:32, 겔 16:8, 23:5, 호 2:7, 19, 마 9:15, 요 3:29, 고후 11:2, 엡 5:25-32, 계 19:7, 21:2, 9-10, 22:17상).
 2. 성경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그분의 아내라는 것과 그분과 우리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결혼의 연합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주는 하나의 결혼식장, 곧 남편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계속)

하나님께서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 합해지고 계시는 장소이다. 결국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 곧 영원토록 우주적인 아내가 될 새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 계 21:9-10, 22:17상.

3. 아내는 결코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반대로 아내는 항상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과 하나여야 한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아내로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남편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그분께 여쭙어야 했었다 — 수 9:14.
4.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기는 신부를 구성하는 이들이 되기를 열망하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에 관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고려하고 살펴보며 결정해야 한다.
 - a. 이러한 방면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약해질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마주친 일들과 관련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조언을 구하며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고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지도 않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않으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달콤한 생활이다 — 고후 12:9-10.
 - b.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모든 일에서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모든 일에서 또 다른 분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 빌 4:6-7, 잠 3:5-6, 램 17:7-8, 고후 1:8-9, 시 62:8, 시 102편 제목 및 7절.
5.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수백 번, 수천 번의 대화를 하게 되며, 이것의 결과로 여러분과 그분 자신의 영원한 기념이 되는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 위치만 니 전집, 7권, 기독교보(5), 276-277쪽.
6. 이스라엘이 자신의 남편께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결과로, 이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아내는 속임을 당하였고 보호와 안전장치를 얻지 못했다.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서 그분과 함께 살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언제나 그분과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수아기 9장의 내재적인 의미이다.